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진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n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집착 · 관습 못때면 내 삶은 누더기

15면에서 계속

“그래서?” “그래서?” 들기 싫다 할 때까지 하라고 하니 그렇게 단순하게 끊어지는 거죠. 그 말하고 난 뒤에는 “그래서 자꾸 건너갑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건너갑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할머니가 그 꼬리를 물고 또 건너갑니다. 연방 아들이 건너갑니다. 또 자식이 건너갑니다. 그냥 연방연방 쥐가 꼬리를 물고 또 건너갑니다. 쥐가 꼬리를 물고 또 건너갑니다.” 마냥 이렇게 사물을 해대니깐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들기 싫어서 아주 죽겠다는 거죠. 그런 걸 말 내 주기가 싫어서, 거기 같은 농한테 말 내 주기가 싫어서 영 대답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야 그래도 보름을 지팡하다가 결국은 말을 내주고 말았답니다.

겨 있던 것이 차례로 풀려나오는 것 뿐입니다. 자기 오싹이라는 안에 속명통이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자동적인 녹음기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스스로 감겨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지 어떡합니까? 그것을 알면 바로 수업을 길어서 뽕게 익었다는 얘기로 할 수 있죠. 말로 하거나 수업인 거지 진짜 수업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만 가지 천 가지들 다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나는 것도 고정된 게 없습니까. 일거수 일투족 다 그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라고 세울 것도 없고, 나라고 내놓을 것도 없고, 내가 했다고 할 것도 없다. 그럴 때 그 고정된 게 없었어, 거기다가 그냥 스스로 일을 하면서도 놓고 가고, 뭐 놓



그림 · 최주현

놓지 않았으면 안됩니다. 그건 절대예요. 자기가 지어왔기 때문에 나쁜 좋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위 조상이 자기를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 걸 몰라 그러면 요다음에 또 이어질 않아요. 자기를 아는 사람 같으면 잘 리드해서 동등하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힘이 있다면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그렇지 않죠. 힘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생각을, 그 쪽이나 사나, 못났든 잘났든 한생각을 잘 두세요. 이 공부한다고 해서 벼락부자가 되는 건 아니예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알기랄은 할 수가 있죠. 얼마나 좋아요? 알기 람도 하게 해주지, 공부하게도 해주지, 마음 착하게 살도록 하고 세세생생에 이

도 이게 두드러지지 않고 또 큰 그릇에다가 일체제불의 마음을 다 넣어도 크면 큰대로 차고 작으면 작음대로 차고 아주 그렇게 여여하다 이 소립니다.

“공부는 해서 뭘해 죽으면 그만인걸”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지게 해주지, 얼마나 좋아요? 모두 자기 원소 자체가 하는 거죠.

천도재에 참여하는 마음자세

문: 큰스님 법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 오늘 저는 천도재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예를 끌고 천도재가 있으면 가끔씩 동참을 해서 마음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우가 제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도재 지내는 데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을 냈느냐 라고 물어왔는데, 질문을 받고 보니 저도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그대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일체를 다 둘로 보지 않고 그 영기도 나와 둘로 보지 않고, 또 천도

문: 그런데 굳이 천도재를 꼭 형식적으로 지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 항상 그 일체 중생들과 조상 영가들과 다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면 그것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지요?

답: 그건 집이 마음이지요. 그거는 집이 마음이고 죽은 영가들은 그렇질 않아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들도 다 마음이 천차만별인데, 죽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똑같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도리를 하나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면서 너무 낙관낙관해도 안되고, 너무 강해도 안되고, 알맞게 하면서 서서히 맑게 청정하게 이끌어드리는 거죠.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 나타나

문: 저는 강릉지원에서 온 신도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돌아가신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꿈에 어느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어느 날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두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차츰 비가 멎기도 했습니다. 그런 꿈을 자주 꿰서 제가 ‘아, 주인공, 일체제불과 조상님이 한마음인데 이 시황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민이 알 수가 있으니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줘’ 하고 계속 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조상님을 위해서 재를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스님께 여쭙습니다.

답: 대에서 형성되기 전에는 바로 전에 살던 자기 조상이요. 그것은 아버지 즉 ‘부’가 되죠.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은 바로 ‘자’가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하죠? 그럴 그것을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공한 도리를 알면 죽은 것이다 라는 뜻이 나오죠. 또 어머니가 죽었다 이렇듯, 어머니가 죽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이 전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생하죠. 그리고 또 두분이 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천, 지, 인이 그대로 죽었으니 자기는 살아야 가깝이, 즉 새싹이 또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제 문이 좀 열리다 이 소리로요. 그런데 그걸 왜 부모에다 되웁니까? 뭐가 안되도 조상의 탓으로 자기 돌리실니까? 자기 조상의 탓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은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의 모습으로 화해서 보여 주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꿈이예요. 꿈이다 생사 할 것 없이 이런 꿈이 꾸어지면 제사지낼 걱정하지 말고요. 아하! 이게 나의 책이요. 이, 이제 두분 다 자기가 자기가 죽었으니, 들이 아니게 죽었으니 문이 좀 열리게 되나 보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빛은 가다가 꺾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찰나에 삼천대천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듭니다”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이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꼬리 끊어질 사이가 어디 있고 꼬리 풀을 사이가 어딴습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사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그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작다 크다, 높다 낮다 할 여지가 없죠. 여지가 없이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먼지 앉을 게 없어? 병도 나고 뭐, 먼지도 앉고 별거 다 하지’ 이러지만 그 너머로 훌쩍 넘어선다면 그 소리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 세상을 모두 한 눈에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상세계 · 중세계 · 하세계를 한 눈에 보고, 수레가 굴러가는 걸 볼 때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니까? 불을 떼가 어디 있는 소리밖에 안나올 겁니다. 아

고 깔려고 해서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보진다는 얘기도, 그냥 믿으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고, 안에서도 일을 하고 바깥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 부러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착을 보라’ 하라는 것, 그것도 이름일 뿐이구요, ‘번뇌를 끊어라’ 이라는 것도 이름일

그렇다고 부처님이 아프지 않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보였느냐?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렇지만, 그 육은 자기 시자일 뿐이지 주인이 떠나면 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또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서 또 거기서 나오고, 또 돌아가고, 또 나오고 이러는 거죠. 물과 흙과 바람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울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불이 일어나고 온기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가 생기고 우주 만물이 생겼고, 이런 것 아닙니까.

뿐이예요. 그대로 우리가 더하고 덜할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굴러가는 수레와 같죠. 그 수레에는 바로 심봉이 꿰어져서, 주장자가 그 속에 꿰어져 있어서 굴러가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닦혔을 때 그 대처를 할려면 그 심봉을 믿어서 거기다가 다 놓게 되면, 스스로 그냥 굴러가다 재생이 되고 또 일들이 타협이 되죠.

이건 심성의화이라고, 아니 심성화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간이라든 한 사람 앞에 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한 마음에서 한생각에서 여기다가 모든 것을 놓으면, 여기서 바로 인자로 화해서 분자가 돼서 다 그냥 이렇게 나누어져서 역할을 해요. 짐에도 게가 있으면 낚시 사람이 오면 낚는 것과 같이 자기한테 결부된 사람 앞에는 다 조절을 해요. 그러듯이 자기 마음에 주인이 있으면 신하다, 주인이다 할 게 없이 평등한 마음에서 바로 그렇게 분자가 될 때는, 바로 거기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아축도 되고, 아이타도 되고, 마루도 되고, 용신도 되고, 자신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칠성도 되고, 지장도 되고 아니되는 게 없이 그렇게 분배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원자에서 나가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

습성을 떼려 말고 그냥 제자리에 놓으세요 고정된 것 없으니 ‘나’ 라고 세울 것도 없죠

게 나가서 일하고는 또 다시 들어오면 그냥 원자일 뿐이죠. 그래서 깨나도 풀지 않고 놓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의 법이거든요.

문: 그저 몸이 있을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넓게 생각을 하시고, 더불어 넓게 좀 보시구요. 즐겁게 사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어느 편가는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마음은 항상 채가 없다고 하더니 이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는구나.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주먹으로 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울다가 웃다가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디나 공부하는 걸 보면 노래하는 걸 봐도 그렇고 기도 드리는 걸 봐도 그렇고, 열불하는 걸 봐도 그렇고, 전부 기록에 적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할 게요. 요만한 등장을 꼭 해놓고선 거기다 꼬리표해서 붙이고요, 나는 참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세상에 저렇게 눈뜨고 코 때먹고, 눈 때어먹고 그 때어먹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가? 부처님은 환홀하기도 하십시오. 부처님은 백다귀를 다 고아서 먹어도 그냥 아무 소리가 없어요. 접대기를 다 벗겨먹어도 가만 있고, 살을 때면은 또 살이 붙고, 때면 또 살이 붙고 이러니 영구히 때어먹어도 아마 다 못 때어먹을 겁니다. 불법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소임을 맡는다. 그 소임을 맡아서 얼마만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먹어 살릴 수 있고 얼마만큼 사람을 만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만백성을 다 살리고 모든 생명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또 단 백성을 다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것이 ‘불’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불생 없는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나가 불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영령이 즉 말하자면 뜻으로 통하고 말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아니 우주 삼라만상이, 우주뿐만 아니라 과거 · 미래 · 현재 이것이 그냥 돌아가는 그 자체를 우주라고 한다면 삼천대천세계의 우주 천하 이렇게 할 수 있죠. 우주 천하! 이것이 다 그냥 돌아가고도 남음이 있고, 그것이 한생각에 한 찰나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한 찰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죠.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가며 또는 빛은 가다가도 꺾일 수 있지만, 찰나에 마음이라는 것은 땅 속이나 바닷 속이나 어디고 깊어서 못 간다. 넓어서 못 간다. 높아서 못 간다가 없다고요. 과거로도 돌아갔다가 미래로도 돌아갔다가 현재로도 왔다다 그 마음대로 자유자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뜻을 들어서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들어서 알고 있으면, 그렇다더라 하고 알고만 있어도, 요다음에 나올 때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유스럽게 자기가 몸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유자재할 수 있죠. 정말이지 몸은 어떻게 가져 나오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일차적이고, 이차적인 건 몸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에 내가 소임을 맡는다. 그 소임을 맡아서 얼마만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먹어 살릴 수 있고 얼마만큼 사람을 만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만백성을 다 살리고 모든 생명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또 단 백성을 다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거쳐야 그래도 부처님이요, 뭐, 꼭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된다 이라는 것도 과거로부터 지어

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 자리에서 한 것이니까, 오로지 근본 자리에서만이 그 진리의 세계로 올리려고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대답이었는지, 또 제가 올바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서 큰스님께 여쭙습니다.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답: 재지낼 때나 천도재를 하거나 이 때 때 왜 등그런 떡을 한조각이나 세조각이나 해놓으라고 그랬는거 하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이렇게 반찬을 해 놓고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도로 묶어 놓으려면 그렇게 반찬들을 해놓고 지내고, 그렇지 않고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게끔 하려면 그냥 동그렇게, 그것도 안해봐도 되는 거지만 형상이라도 공부하기 위해서이고, 또 남이 볼 때도 그렇고 그렇게 섬삼하고 고지내야 되. 동그런 떡을 하나 해놓고 과일 세가지를 한그릇에 놓고 초 향만 켜고 지내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살 때에 그 먹고 살던 것이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도 자기가 먹고 살던 그 생각이 나서 자꾸 뭘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먹지도 못 하면서도 먹게 해달라고 하고 성가시게 굴죠. 성가시게 굴다 하더라도 잘 되지만 한번 좋으면데 잘못됐으니까 성가시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양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하나 해 놓고 그 떡 안에 다 넣어야, 이 지내는 사람이 떡 안에 다 한마음으로 넣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야 되죠. 그래서 한마음을 하면 벌써 한 떡 하나예요. 한마음을 하면 떡 하나로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모든 영령들을 쫓살 일컬어 하나에다가 일체제불의 마음을 다 넣어

여사아운의 선택

대행스님의 신명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살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삶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와 '대행스님'이 나누는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스님의 大用心이 빛어낸 깨달음의 화답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역음
451면 4000
여사아운 역음
값 5000원

이 책에 소개된 30여 항목의 삶의 질문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 (94.10.15)부터 14호(95.02)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1년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여사아운 출판은 바쁜 바쁜 여사아운이 전한 법의 정신으로 사내의 믿어 질 책들을 만들어냅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